
-2018년 제1회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
회 의 록

2018. 3.

도시공간개선단

「2018년 제1회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 회 의 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3. 9.(금) 10:00~13:00
- ◆ 장 소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
- ◆ 참석위원 : 10명(총 16명으로 구성)
 - 승효상(위원장, 이로재 대표)
 -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양용택(도시계획과장/代 도시계획국장)
 -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김인제(시의원)
 - 김영준(서울시 총괄건축가), 배형민(서울시립대 교수)
 - 이창현(국민대학교 교수), 조민석(매스스터디스 대표)
 - 이영혜((주)디자인하우스 대표)
- ※ 배석 : 안재혁(도시공간개선반장/간사), 최재준(도시건축교류팀장)
- ◆ 상정안건
 1. 2019년 제2회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선임(안)
 2. 2018년도 서울비엔날레 추진계획 보고
 3. 서울비엔날레 실무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간사 성원 보고

위원장 개회 선언

- 지금부터 2018년 제1회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2회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선임(안) 보고

안건설명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제2회 총감독 선임 관련하여 시기 및 대상자 등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1회 서울비엔날레 개막시기에 맞춰 행사 진행과정을 함께하고 차기 비엔날레 홍보 등을 위해 총감독을 조기에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분들의 개인 사정이나 주변 환경 등 기타 여건들로 인해 선임이 지연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공동총감독 후보자 두 분의 면면이 훌륭하여 차기 비엔날레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해외총감독 후보인 프란시스코 사닌 교수는 서울과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라큐스 대학교 교수 등 오랜 기간 교육계에 있으면서 해외 네트워킹 또한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건축가이지만 건축 뿐 아니라 도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도 갖추었기 때문에 도시건축을 주제로 한 서울비엔날레 적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국내총감독 후보인 임재용 대표는 건축가로서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전시 및 기획(단체 대표)에도 탁월한 실력이 있음이 입증된 건축가입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총감독 간의 시너지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위원〉

- 총감독 선임을 진행하면서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고 능력이 뛰어난 분들을 초청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행사 2년 전에 초청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3회 서울비엔날레 추진 시 조금 더 서둘러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1회 서울비엔날레와 마찬가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2회 서울비엔날레의 경우도 조직 등 아직 기반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유들로 인해 당초 단독 감독체제로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어 2회 서울비엔날레를 국내외 공동총감독 체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위원〉

- 시카고비엔날레의 경우 그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감독제로 추진하였으나 차기 비엔날레 감독의 경우 유명하지 않은 감독을 초청하여 개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감독 후보자 분들이 그간 추천된 후보들만큼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지 않더라도 서울비엔날레를 이끌어 갈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동총감독 체제의 경우 두 감독 간 역할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감독 선임 전에 사전 조율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동의합니다. 더하여 제3회 및 제4회 차기 서울비엔날레 추진조직 구축 등을 위해 국내감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동총감독의 경우 주제선정, 운영 등 감독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독 선임 시 반드시 두 감독의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1회 서울비엔날레를 지켜보면서 총감독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공동총감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과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그간 운영위원회에서 감독 구성방법과 시기 등에 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제2회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또한 공동총감독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나 운영위원회에서 두 감독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주시고 2018년과 2019년 서울시와 서울비엔날레의 비전과 미션 또한 분명히 해줌으로써 여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더하여 다음 서울비엔날레 감독 선임 시에는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

- 공동감독제에는 반드시 갈등이 발생합니다. 서울에서 개최하는 비엔날레입니다. 감독을 국내감독 단독감독으로 선임하고 세계적으로 명망 있고 능력 있는 해외전문가는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시 고려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동감독제는 무엇보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 위원>

-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당초 제2회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선임 시 그 점을 고려하여 국내 단독감독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방안을 원칙으로 국내외 여러분들을 초청하려 노력하였으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정이나 주변상황들로 인하여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전문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외네트워크 또한 단단한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니다. 이에 공동감독제의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두 분두 감독을 선임하여 공동감독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서울비엔날레는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능력이 뛰어난 분도 좋지만 다양한 홍보활동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젊고 활동적인 감독을 선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위원>

-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큐레이터 그룹을 만들어 다양한 부분에서 비용대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감독을 조율하고 총괄할 수 있는 조직(또는 개인)이 필요합니다.

<○○○ 위원>

- 제1회 서울비엔날레를 보면서 공유도시라는 주제에 대한 담론을 얼마만큼 이끌어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감독 간 화학적 결합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줬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두 감독 간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회 서울비엔날레 공동총감독 두 분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공동감독 운영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도 두 감독 간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제2회 서울비엔날레의 국내외 공동총감독제 운영에 대해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지요?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2. 2018년도 서울비엔날레 추진계획 보고

안건설명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1회 서울비엔날레 때에도 추진하였던 내용입니다.
베니스건축비엔날레의 경우 전 세계 도시에서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각 도시별로도 홍보행사가 여러 곳에서 이뤄집니다. 서울비엔날레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 위원〉

-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용역의 경우 총감독과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이지요? 총감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지난 1회 행사 추진 시 행사연도에 기획과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회 행사 추진 시 비행사연도인 올해부터 기획 및 프로그램개발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감독 선임 후 총감독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

- 1회 서울비엔날레 평가보고 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기획 및 프로그램 용역 추진 시 일반적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진하시되 홍보 기획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총감독의 기획방향에 부합하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홍보는 감독이 추진하는 모든 추진과정이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독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고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 위원〉

- 재단 설립 추진 시 비엔날레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도시, 건축, 재생과 같이 여러 분야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

-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을 재단설립을 추진할 경우 행정절차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원〉

- 비엔날레에 국한된 업무만 추진하는 재단보다는 다른 위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 등 여러 분야의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재단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 위원〉

- 백서 추진 시 추진과정의 모든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 위원〉

- 도시재생엑스포(가칭)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프리비엔날레 추진 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들 >

- 동의합니다.

3. 서울비엔날레 실무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안건설명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를 더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분야별 실무회의 개최 시 운영위원회 전체 또는 개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 원 들 >

- 동의합니다.

위원장 폐회선언

-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